



## 광우병 공포 - 유럽에 악몽 재연

유럽에 다시 "광우병 panic"이 확산되고 있다. 영국의 악몽에서 4년반이 지나 프랑스를 진원지로 한 이번 소동은 영국으로부터의 불똥을 주변국이 막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狂牛病은 소의 뇌가 스펀지모양이 되고 사람에게 옮길 위험성도 높다. EU는 각국에서 감염된 소가 늘어나 대책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 □ 공포를 물고 온 "인간에 감염"

- "요리의 나라" 프랑스에서 10월하순에 광우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이 가는 쇠고기가 슈퍼마켓에서 판매되었다는 보도로 유럽의 2차 광우병 공포가 시작되었다. 프랑스에서는 쇠고기 소비가 40% 넘게 줄었고 인근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은 프랑스산 쇠고기를 수입금지 조치했다.
- 유럽의 소비자는 영국의 소동 이후 광우병이 원인이라는 신형 크로이쯔펠트 야콥병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 병에 걸리면 뇌가 소와 같은 상태가 되어 짧은이도 치매에 걸려 결국 죽는다. 영국에서는 이미 69명이 희생되었고 프랑스에서도 2명이 사망했다. 프랑스에서의 오염육 사건은 감염 공포심에 불을 질렀다.
- 각국은 당초 혼란을 불러온 프랑스를 책망했지만 사태는 급속히 전개되어 1개월 후 지금까지 광우병 발생이 없었던 독일, 스페인에서 감염우가 잇달아 확인되었다.
- EU본부가 있는 벨기에에는 주변이 오염국으로 된 충격을 신문이 계속 톱뉴스로 내보내고 있다. EU는 광우병 만연이라는 현실에서 이제 빠져나갈 수가 없게 되었다.

### □ 광우병의 확산

- 유럽 각국은 광우병이 심했던 영국으로부터 오염을 막기 위해 '90년대 초반부터 "영국 봉쇄"작전을 펴왔다. 소와 쇠고기 수입을 중지했고 '96년 봄 영국정부가 사람에게도 전염 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폐허이 일어나 EU는 영국에 대해 전면 금수조치를 지시했다.
- 그러나 공포의 광우병은 도버해협을 넘어 유럽 본토에 슬며시 전염되었다. 5년 이상의 잠복기간이 경과되어 나타난 것이다. 특히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위스가 심하다.
- 영국 봉쇄는 왜 실패했을까? "영국의 동물성 사료가 전염원"이라고 국제수역사무국 고자와(小澤)고문은 말했다. 이 동물성 사료는 도축후의 소 부산물을 원료로 한 육골분(肉骨粉)이다. 병원체인 광우병 프리온(단백질)에 오염된 사료가 영국으로부터 밀수되어 광우병을 씨 뿌렸기 때문이라 한다.
- 이 영국산 사료가 원인이라는 설은 유럽에서 지금 공공연한 비밀이다. 오염사료의 밀수는 '88년부터 '96년까지 계속되어 유럽의 전문가들은 그 양을 8만톤 정도로 추측한다. 각국이 취한 쇠고기 금수조치는 소비자의 불안감을 줄이는 것에 불과하다.

※ 유럽 각국의 광우병 확인 마릿수('86년-2000.11.21현재)

순위	국 가	마릿수	순위	국 가	마릿수
1	영 국	180,000	6	벨 기 에	18
2	아일랜드	487	7	네 델 란 드	7
3	포르투갈	461	8	리히텐슈타인	2
4	스 위 스	364	9	룩셈부르크	1
5	프 랑 스	183	10	덴 마 크	1

※ 최근정세 : 독일, 스페인에서도 11월 하순 감염우가 발견 됨

### □ 원인은 동물성 사료

- 사료 밀수가 시작 된 '88년은 영국이 소에게 동물성사료의 급여를 금지한 해이다. 영국은 광우병 전염원이 소가 소를 먹게되는 동물성 사료에 있다고 단정했다. 팔리지 않는 사료가 프랑스 등 인근 국가에 밀수루트로 흘러 들어갔다.
- 유럽 본토에 전염 된 소는 이제 각국에서 다시 소 사료(동물성)가 되어 폭발적인 전염을 일으키는 "악몽의 사이클"이 되었다. EU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 '94년으로 소에게 동물성 사료의 급여를 금지했다.
- 이미 늦은 조치였지만 그렇다고 전염이 완전히 차단된 것은 아니었다. 소에 사용하지 못하는 동물성 사료는 돼지, 닭, 양식어류용으로 전환했지만 이것이 불법적으로 소에게도 계속 사용되었다고 한다.
- 각국은 발병이 보이면 영국처럼 해당 소 폐를 도살처분하여 광우병 진화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전염 사이클이 남아있다면 도살처분도 "두더지 잡기"(주: 머리 내미는 두더지를 망치로 때리는 놀이)에 불과하다.
- 프랑스는 이번 소동에서 시라크 대통령이 "동물성사료 사용을 즉각 전면 금지한다"고 TV를 통해 발표했다. 광우병 "악몽의 사이클"을 완전히 끊는 조치를 프랑스 정부가 지난달 중순에 공식으로 결정했고, 독일도 뒤를 이어 지난주에 전면금지 했다.

### □ 동물성사료의 사용중지

- EU각국은 지금까지 "광우병 전염원"을 찾으면서 동물성사료의 전면금지를 하지 못했다. 가축 부산물의 사료화를 중단하면 부산물 처리, 사료부족, 사료업자에 대한 보상 등 심각한 환경, 경제문제가 직면하기 때문이다. 특히 가축사료의 단백질원을 곡물에서 구하려면 미국 등에서 대량의 콩을 수입해야 한다.
- 유럽내 2차 광우병 폐닉이 확산 된 지금 EU는 지역내의 동물성사료 전면금지 결단을 내려야 할 입장이다. EU는 4일 이 문제를 임시 농무장관 이사회에서 논의한다.
- 일본의 방역체제는 영국이외의 국가로부터 수입을 고위살균을 조건으로 인정하고 있다. "동물성사료의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 사료도 밀수가 있다"고 국제수역사무국 고자와(小澤)고문은 경고했다.

(출처 : 日本農業新聞, 2000.12.4)